

# ‘타율 1위’ KIA - ‘홈런 1위’ SK... 제대로 붙었다



‘타율 1위’ KIA 김선빈.



‘홈런 1위’ SK 최정.

## T 타이거즈 전망대

‘집중타’와 ‘한방’의 싸움이 인천을 뜨겁게 달군다.

KIA 타이거즈가 4일 인천 SK 행콧드립구장에서 7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에 도전한다.

지난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 이어 주말 잠실로 건너가 LG 트윈스를 상대했던 KIA는 6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 앞선 KBO 최다인 4경기 연속 기록을 뛰어넘었다.

KIA는 지난달 28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장단 29안타로 한 경기 최다 안타 타이 기록과 함께 팀 최다 득점 기록인 22득점을 만드는 등 최근 6경기에서 79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지난 2일에는 7회 2사에

## 팀타율 1위 KIA

최근 6경기서 79득점

김선빈 등 ‘타율 톱10’ 4명

7연속 두자릿수 득점 도전

## ‘12연승’ 헥터-‘9연승’ 켈리 선발 맞대결도 빅뱅

서 강우 콜드가 선언되면서 8-9회를 치르지 않았지만 13-4 승리를 장식하기도 했다. 잠실을 시작으로 문학-수원으로 이어지는 원정 9연전이 KIA를 기다리고 있다. 4일부터 전개되는 SK 와이번스와의 주중 3연전은 2017시즌을 대표하는 화력의 두 팀이 만나는 흥미로운 대결이다.

## 홈런 1위 SK

최정 29개·한동민 23개 등

팀 홈런 137개...2위 50개차

두자릿수 홈런만 5명

KIA는 ‘뜨거운 일주일’을 보내면서 팀 타율이 0.304까지 치솟았다. KIA는 78경기에서 485타점을 기록하면서 역시 타점 1위 자리에 올라왔다.

톱타자 이명기와 부활한 김주찬으로 구성된 ‘공격형 테이블 세터’에 버나디나-최형우-안치홍으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

오’의 파괴력은 리그 최강이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베테랑 이범호와 서동욱, 찬스에 강한 포수 김민식 그리고 타율 1위(0.378)의 김선빈이 뒤를 받치고 있다.

김선빈을 시작으로 2위 최형우(0.366), 7위 이명기(0.351), 9위 안치홍(0.340) 등 4명의 타자가 타격 10월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쉬어갈 곳 없는 집중타로 투수들을 흔들고 있는 KIA다.

주중에 상대하는 ‘비룡 군단’은 한방으로 상대의 기를 질리게 하는 ‘홈런 군단’이다.

SK는 올 시즌 79경기에서 137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날리며 독보적인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 두산이 87개로 한참 뒤에서 추격하고 있고, 홈런 최하위 LG(46개)와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운 홈런을 터트리고 있다.

최정(29개)과 한동민(23개)이 나란히 1-

## ■ KBO리그 팀순위 ※ 3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KIA	78	51	0	27	0.654	0.0
2	NC	78	47	1	30	0.610	3.5
3	SK	79	44	1	34	0.564	7.0
4	넥센	77	39	1	37	0.513	11.0
5	두산	75	37	1	37	0.500	12.0
6	LG	76	37	1	38	0.493	12.5
7	롯데	77	37	1	39	0.487	13.0
8	한화	77	34	1	42	0.447	16.0
9	삼성	79	29	3	47	0.382	21.0
10	kt	78	27	0	51	0.346	24.0

2위를 달리며 52개의 홈런을 합작했다. 김동엽도 16개의 홈런으로 전체 7위다. 로맥(13개)과 나주환(11개)도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는 등 무서운 힘을 보여주고 있다.

정교함과 집중력으로 승부하는 KIA와 파워로 맞서는 SK의 관심을 끄는 타격전, 시작은 헥터(KIA)와 켈리(SK)가 연다.

마운드에서는 연승을 놓고 힘겨루기가 진행된다. 헥터는 올 시즌 2.92의 평균자책점으로 ‘무패행진’을 달리면서 12연승 중이다. 안정감 있는 피칭으로 많은 이닝을 책임져주면서 타자들도 헥터의 등판날 불을 뿜고 있다. 올 시즌 기록된 KIA의 선발 전원 안타 5경기 중 4경기의 선발이 헥터였다.

헥터에 맞서는 켈리도 연승 행진 중이다. 지난 5월 6일 넥센전에서 뒤늦게 시즌 2승에 성공했던 켈리는 이후 9연승을 달리며 10승 고지를 밟았다.

무시무시한 타자들을 등에 업은 두 투수의 연승 싸움으로 KIA의 한 주가 시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최형우 ‘왕 별’...KIA 올스타 8명 선정

양현종·김선빈·버나디나 등

넥센 이정후 최연소 올스타

KIA 타이거즈의 ‘신해결사’ 최형우가 2017 KBO 올스타전 최고 인기선수로 등극했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2일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를 합산한 24명의 올스타를 확정해 발표했다. 총 투표수는 팬 212만 3872표, 선수단 294표로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를 70% 대 30%의 비율로 합산해 최종 점수를 집계했다.

‘최고의 별’은 KIA 최형우였다. 4주간 진행된 팬투표에서 줄곧 최다 득표 1위 자리를 지켰던 나승우(KIA, NC, 넥센, LG, 한화) 외야수 최형우는 10개 구단 120명의 후보 중 가장 높은 54.95점을 획득했다. 팬 투표에서는 118만 7481표로 1위, 선수단 투표에서는 155표를 받으며 두산 김재호와 공동 6위를 기록했다.

감독, 코치를 포함한 선수단이 뽑은 인기 스타 자리는 드림 올스타(두산, SK, 롯데, 삼성, kt) 1루수 부문의 롯데 이대호가

차지했다.

선수단으로부터 294표 중 70%에 달하는 205표를 얻은 이대호는 총점 54.35점(전체 4위)으로 개인 통산 8번째이자 2011년 이후 6년 만의 올스타전 무대를 밟게 됐다.

KIA에서는 최형우를 필두로 선발투수 양현종(54.62점), 중간투수 김윤동(35점), 포수 김민식(42.03점), 2루수 안치홍(32.75점), 3루수 이범호(32.60점), 유격수 김선빈(44.67점), 외야수 버나디나(40.34점) 등 8명이 올스타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이범호는 3루수로 통산 7번째 베이스에 선정되면서, 역대 최다인 한대화(전 쌍방울)와 타이 기록을 이루게 됐다. 김윤동, 김민식, 버나디나에게는 생애 첫 올스타 무대다.

드림 올스타 지명타자 부문의 삼성 이승엽은 총점 54.41점(전체 3위)으로 개인 통산 11번째 올스타전을 치르게 됐다. 홈구장에서 치르는 마지막 올스타전이기도 하다. 또 이승엽은 올스타전이 열리는 7월 15일 기준 나이가 40세 10개월 27일로 최고령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강릉서 온가족 해양스포츠 즐겨요

17일까지 전국대회...가족부 신설·무료 체험 등

창간 72주년을 맞는 강원일보사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연맹장·왕종배)이 주관하는 제10회 전국해양스포츠대회가 17일까지 강릉청소년해양수련원과 주문진해변에서 계속된다. 지난 1일 시작된 대회의 개막식은 15일 오전 10시 강릉청소년해양수련원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는 강원도와 강릉시가 후원하며 14일까지 사전 신청을 하면 바다레프팅, 오션카약, SUP(스탠드 업 패들보드) 교육과 체험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해양스포츠 대회와 해양레포츠를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초등부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가족부로 나눠 15, 16일 이틀동안 바다레프팅 대회, 16일에는 오션 카약대회와 SUP대회가 각각 펼쳐진다.

바다레프팅대회는 8명(초등부는 10명)이 한팀을 이뤄 대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1등 팀에게는 최고 50만원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2인 1조로 진행되는 오션카약대회에는 최고 20만원의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가족부를 신설해 아버지와 또는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조를 이뤄 참여할 수 있다.

또 올해 처음 실시되는 SUP대회는 패들보드를 서서 노를 저어 타는 인공 해양스포츠다. SUP은 주니어 오픈, 주니어 여성과 일반부, 40대 이상이 참여하는 시니어부부로 나눠 진행된다.

이동진 강원일보 영동총지사장은 “전국해양스포츠대회는 해양스포츠 최적자인 주문진 해변을 공유하고 다채로운 해양 스포츠를 무료로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다양한 바다 레포츠를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했다.

문의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033-662-0010·0112).

/강릉=강원일보 조상원기자

## 광주 근대5종팀, 장관기 첫 종합 우승

광주체고 김경환 2관왕...남일부 시청팀 금1·동1

광주가 제2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근대5종경기대회에서 고등부와 일반부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광주 소속 근대5종팀은 지난달 28일부터 3일까지 해남 일원에서 열린 대회에서 남자 고등부 개인전에 출전한 김경환(광주체고 3)이 1,183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경환은 김영석과 윤상민과 조를 이뤄 릴레이에 출전해 1,262점으로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단체전에서는 4,471점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남자일반부 릴레이에 출전한 광주시청(황우진, 이현우, 송호준)도 1,253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뒤이어 열린 단체전(송호준, 이종협, 윤일모)에서는 은메달을 거머쥐며 이번 대회 종합 우승을 거머쥐었다.

/김진수기자 jeans@

## 강진청자매 전국 초등학교 티볼대회 성료

2017 강진청자매 전국초등학교 티볼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국 24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전국초등학교 티볼대회가 지난 1·2일 강진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됐다.

전국 초등학교 티볼팀의 교류확대와 남도 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알리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신재주초를 비롯해 서울·경기도 6팀, 충청도 1팀, 경상도 3팀, 전북도 1팀, 광주 3팀, 전남 10팀이 참가했다.

1일에는 24개팀이 1조 3개 팀으로 나눠 조별 예선을 치렀고, 2일에는 8강부터 결승까지 결선 토너먼트가 진행됐다.

우승의 영예는 수원 신봉초에게 돌아갔다. 수원 동신초는 준우승 팀이 됐다. 양산 중부초와 서울 백운초는 공동 3위에 올랐다. 신봉초 김민준이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고, 동신초 강지민은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했다.



특히 대회 우승팀인 신봉초는 국제 교류를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신봉초는 오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도쿄 세이부 돔 야구장, 와세다대학교에서 열리는 아시아 티볼대회 대표로 참가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조선대 김한울 서울시장기 스포츠클라이밍 난이도 부문 우승

제20회 서울시장기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에서 조선대 김한울(체육학과 4)이 난이도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한울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서울 종로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난이도 부문 남자 일반부엘리트경기에서 광주대표로 출전해 41개의 홀더를 잡아 1위에 올랐다.

15m 높이의 인공암벽 코스를 사전 공개하지 않고 경기를 시작하면서 한눈에 보고 오르는 온사이트 리딩(Onsight Leading) 방식으로 치러진 경기에서 김한울은 41번째 홀더를 잡고 42번째 홀더에 도전하던

중 미끄러졌지만 대회 2위인 박지환(경기대)이 41개 시도에 그쳐 1위를 거머쥐었다.

같은 대회 속도부문 출전한 조승운(조선대)과 서동진(조선대)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고 여자 고등부의 김민지(송원여상)는 3위를 기록했다.

광주시산악연맹 조계주 감독은 “습한 날씨로 인해 성적이 저조할까봐 우려했는데 기우였다. 노력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김한울은 오는 7월 스위스 빌라스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클라이밍맹 주최 월드컵에서 우승을 노린다. /김진수기자 jeans@